TAEHEUNG F&G

수목·조경 비료에 관한 모든 것

사람도, 자연도
더 없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Fertilizer & Global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프리미엄 1등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냄새없는 완숙 퇴비"

그린애 조경용 퇴비 20kg

- 철저한 부숙·후숙 과정을 거친 완숙퇴비로서, 냄새와 가스가 전혀 없어 공원 등 조경 녹지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
- 토양구조를 개선하고, 식물 생육을 촉진하는 유용 미생물을 다량 함유
- 양질의 유기물인 코코피트와 양이온치환용량이 높은 제오라이트를 함유하여 보수력·배수성·보비력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량하는 효과가 탁월
- 천연 부엽토를 다량 함유하여 수목에 가장 친화적인 유기물을 공급
- 최고급 발근제를 다량 함유하여 발근 촉진 및 조기 착근을 유도

멀티그린테크 1L

- 빠른 세포조직 형성으로 뿌리발근에 효과적
- 해조류 추출물의 천연 생리활성물질과 미네랄 등 다량 함유로 식물 생장 촉진에 탁월

루트테크 1L

- 고품질의 풀빅산과 켈프의 함유량을 높여 발근 효과가 탁월하며 잔뿌리 생성 조직재생 유도
- 시들음, 고온·저온 장해 조기회복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Fertilizer & Global 태흥F&G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증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룡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조경수 2025. 봄호 Vol.186
한국조경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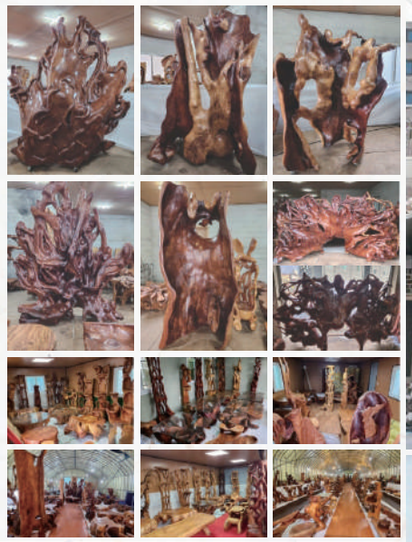
ISSN 1225-4169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5. 봄호 Vol.186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삼성물산 협력업체

대 우 임 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공예품제작용 국산특수목재, 괴목공예가구 전시·판매

대표 구본찬 /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실**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PLAU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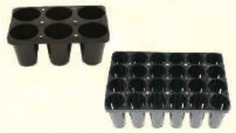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화분받침대(4구, 6구, 9구, 20구)

. 용도: 4구-화분3.0, 사각등 다용도
6구-사각화분140, 원형등 다용도
9구-사각화분110, 원형등 다용도
20구-사각화분90



◈ 시설양묘용기

. 4구, 6구, 12구, 15구, 20구, 24구, 28구, 35구, 40구, 88구, 176구
. 국내 최다 규격의 용기 보유

◈ 삽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삽목용

◈ 슬릿(slit)화분(3.0ℓ, 4.5ℓ, 6.5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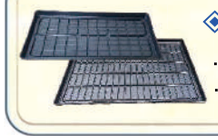
. 화분3.0, 4구-컵, 화분6.5
. 용도 : 뿌리생육에 적합한 슬릿(slit) 화분

◈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Φ335xH305/Φ430xH350/470xH345
Φ520xH375 /Φ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화분 4.5, 7, 10, 12, 19, 25, 140

. 크기 : 4.5ℓ, 7.0ℓ, 10.ℓ,12.0ℓ,
19ℓ, 25.0ℓ, 140ℓ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저면관수베이스600, 1000

. 베이스600 : 1200 x 600 x 75
. 베이스1000 : 1500 x 1000 x 70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ℓ)	품 목	크 기 (외경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Φ200/4.580	화분4.5	Φ211xΦ200xH200	4.5 ℓ	색상5종
4구(일체형)	390*390*170	Φ130/1.560	화분6.5 (slit화분)	Φ246xΦ230xH200	6.4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Φ120/1.350	화분7	Φ257xΦ200xH200	7.0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Φ109/0.863	화분12	Φ300xΦ270xH250	12.0 ℓ	검정색
12구	450x340x170	Φ102/1.050	화분25	Φ385xΦ358xH300	25.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Φ75/0.510	화분140	Φ830xΦ750xH450	140.0 ℓ	
24구(일체형)	420x280x140	Φ64/0.310	조경포트 20형	Φ335xΦ250xH300	19.0 ℓ	(slit화분)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35형	Φ427xΦ335xH350	35.0 ℓ	(slit화분)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45형	Φ470xΦ400xH345	46.0 ℓ	(slit화분)
88구	440x320x65	Φ36/0.043	조경포트 65형	Φ520xΦ450xH375	65.0 ℓ	(slit화분)
176구	535x370x60	30*30/0.036	조경포트 95형	Φ589xΦ507xH427	95.0 ℓ	(slit화분)
삽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삽목상자160	520x370x160	삽목상자	저면관수베이스2종	*베이스600: 1200*600*75 *베이스1000:1500*1000*70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등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볼보의 새로운 미래 –

www.volvoce.co.kr

ECR25 ELECTRIC

• 운전중량 : 2,660kg
• 버켓용량(표준) : 0.11㎥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Volvo Electric Excavator
볼보 전기 소형 굴착기 특별가 렌탈 서비스

이제, 신제품 전기 배터리 소형굴착기 ECR25를
볼보 렌탈 서비스로 부담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ECR25 ELECTRIC 캐노피타입 - 장기, 단기 렌탈 서비스

구분		기간별 렌탈료(특판가)		
장기 렌탈	기간	24개월	36개월	60개월
	장비만 렌탈시	130만원	120만원	100만원
렌탈 만료시 인수 조건	장비+실외용 급속충전기 렌탈시	150만원	140만원	120만원

*상기 장기 렌탈 서비스는 렌탈 만료시 장비 인수 조건이며, 인수시 잔금은 조건 별로 상이함.

구분		기간별 렌탈료			
단기 렌탈	기간	1일	7일	15일	30일
	장비만 렌탈시	13만원	80만원	140만원	200만원
	장비+실외용 급속충전기 렌탈시	15만원	100만원	160만원	240만원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쓰시고 반납이 가능한 경제적인 단기 렌탈 서비스"

혜택 1.
장비 탁송 및 반납시 운송비 전액 지원
(제주도 및 도서 지역 제외)

혜택 2.
1개월 이상 렌탈 서비스이용 전고객
볼보 오리지널 ECR25 Elec 모형 증정

Volvo ECR25 오리지널 모형 1:32

**본 렌탈 서비스는 장비 출고에 따른 재고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사오며, 재 입고시 예약 순서에 따라 상담 후, 렌탈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친환경 ELECTRIC 솔루션 기술 적용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ELECTRIC 배터리 충전 타입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
컴팩트한 ELECTRIC 구동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시간 절감. 점심 시간 또는 운휴 시점 고속 충전 가능.

볼보 일렉트릭 머신 관리앱 EMMA
볼보가 제공하는 Electric Machine Management App은 스마트한 일상 장비관리가 가능합니다.

렌탈·구매 전문상담
볼보 전기굴착기 지원팀
070-5088-3892

VOLVO

MARU PLANTS
농업회사법인 조경마루

재배가 달라지면 화분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럽1위 컨테이너 화분 코스모포트

★ 고객들의 다양한 후기를 들어보세요!

우리화훼종묘㈜, 대림원예종묘㈜, 서광원예종묘㈜, 성진원예자재, 수성조경농원, 화분프라자, 상부농원, 농업회사법인바움랜드㈜, 오랑쥬리, 그린컴퍼니, 남사야생화, 가든팜, 상희화분, 금강원예종묘, 바른원예종묘, 화수조경, 강릉미림꽃농장, 세화화분, 서울장미원, 정원사의오랑쥬리, 금산묘목나라, 농업회사법인㈜정다운원예묘목농원, 대성식물, 농업회사법인, 영풍원예, 백두화분, 호남조경수유통, 영광야생화, 대림원예가든센터, 포항목재, 학구식물원, 목하원예조경, 천안칼라관목㈜, 복남이네야생화, 예원조경건설

제품정보

판매/비즈니스 문의 070-8802-3058

에어포트·마술화분·루트플러스

GSKOREA

컨테이너 재배는 식물의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써클링 방지, 공기 순환, 배수성 탁월, UV차단, 튼튼한 내구성

에어포트 전문 농장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농장을 시청해보세요!

SCAN ME

063-536-1117

주문·상담 문의 (주)지에스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신길 3

Contents

2025. 봄호 Vol.186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수

(주)녹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로 129, 2층

발행인 겸 편집인 유연송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 1월 21일
발행일 2025년 3월 20일
(통권 제186호 봄호)
발행 및 편집주간 여운식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06	이임사		
08	취임사		
10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7	협회소식		
37	지회소식		
42	조경수 책소개	지속 가능한 조경수 산업을 위한 신간 소개	• 박석곤
46	회원사탐방	대구 · 경북지회 「(주) 녹지원」	• 박정기
56	조경수 유지관리	나무를 알면, 숲이 보인다 1장	• 정규종
68	새로운 조경수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속 3편	• 김종근
80	조경수 기고	방랑시인 김삿갓 소나무	• 이용직
84	역사 속 나무 이야기	주몽이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춘 물건이 있다?	• 신현배
90	노거수 산책	남해 비란리 동백나무	• 박정기
96	조경수 기고	담합금지와 예외사례	• 김봉균
108	회원사 동정		
109	회비납부 안내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자미(Ⅲ)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본지에 게재된 내용과 사진은 발행자인 (사)한국조경수협회의 동의 없이는 복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 임 사

반갑습니다.
국토녹화와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한국조경수협회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전국 16개 지회에서 참석하신 임원, 대의원 여러분과
막중한 산림정책과 임업발전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격려차 동참하신 이미라 산림청 차장님, 최무열 한국임업
진흥원장님, 박정희 산림경영인협회장 겸 임업인총연합
회장님과 임업단체 중앙회장님,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옥승엽 회장님, 양평군 유관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우수 지회와 모범농장 표창 및 장학금 수상자와 오늘 출범하는 3년 임기의 협회장, 부회장, 지회장, 감사, 이사님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후계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5명과 고등학생 3명에게 1,15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주신 장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67년도에 창립한 (사)한국조경수협회는 전국 지회별로 조경수를 재배, 공급, 시공하며 국토녹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로 1.6도의 온도 상승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전에 두고 울창한 산림과 숲의 효용가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공기 정화기이자 산소공장인 꽃과 나무를 재배 유통하여 임가소득 증대와 국토녹화에 최선을 다합시다.

제 임기 동안에 많은 응원과 지지로 협력하여 주신 중앙회 임원님과 지회장님, 회원여러분, 사무국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림청과 임업단체의 많은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임하는 34대 유연송 회장님은
조경 전문 경영인으로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추진력을 겸비하여
협회와 지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적임자입니다.
한국조경수협회를 획기적으로 도약 발전하도록 많은 성원과 축하의 박수를 보냅시다!

저는 30년 전, 고등학교 젊은 조경교사 시절
한국조경수협회와 나무를 만나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며, 조경수는 미래 유망 산업임을 체험했습니다.

나무는 생명의 근본이고 모든 사람의 스승이며,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절망 속에 빛나는 희망입니다.
나무가 주는 교훈을 벗 삼고,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19.

제33대 (사)한국조경수협회장 윤 수 근

취 임 사

존경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의원 및 조경 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있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회에서 참석해 주셨으며, 국정운영 와중에도 이미라 산림청차장님, 최무열 임업진흥원장님, 박정희 임업인총연합회장님, 옥승엽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회장님, 각 임업 단체장님, 양평군 체육회 정상욱회장님, 양평군 체육연합회 김효성회장님을 비롯한 12개 읍·면 체육회장님, 임병희 개군면장님 그리고 개군면 기관단체장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962년 발기인대회를 거쳐 1967년 창립되었습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60년으로 육십갑자를 한바퀴 돌게 됩니다. 이 시간동안 쌓아온 우리의 발자취는 도시의 모든 곳에서, 녹색생명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는 회원사의 산업적 활동을 넘어, 국민을 위한 신선한 산소공급원이자 쉼터 및 여가공간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로, 탄소를 흡수하는 생명체이자 조경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과거의 미래세대는 우리이고, 우리는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 녹화와 녹색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욱 굳건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 아가야 함을 절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특히 오늘 이임하시는 윤수근 회장님께도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선배님들의 헌신과 업적을 이어받아 협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협회의 도약을 위한 실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 다.

첫째, 회원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 중심의 협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생산 회원사와 시공 회원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 교류를 활성화하여, 조경수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상생의 기반 위에서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회원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 사업 다변화, 지출구조 개선, 수수료 체계 정비 및 자재 유통 활성화, 신규 수익사업 창출 등의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침체된 전국지회를 활성화하고, 신규회원사 유치를 위해 포럼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협회 창립 60 주년(2027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뜻깊은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협회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 하고, 실천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19.

제34대 (사)한국조경수협회장 **유 연 송**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회 의 명 : 제59차 (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일 시 : 2025년 2월 19일(수) 11시

장 소 : 계룡스파텔 태극홀

참 석 : 대의원 및 내빈 등 250명

제 1 부

◎ **국민의례**

◎ **모범농장 표창 : 이미라 산림청차장 전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강정수(대구.경북지회). 안신(충남서부지회)
- **산림청장상** : 이진효(경남서부지회), 최윤주(울산지회)

◎ **협회장상**

- 송인자(전북동부지회)

◎ **우수지회 표창**

- **최우수상** : 광주·전남서부지회(지회장 이병관)
- **우수상** : 경기지회(지회장 김재용)
- **장려상** : 충남서부지회(지회장 이충로)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수 (장학금 통장 계좌이체)**

- **장학위원** : 위원장 이강대, 위원 유명수, 김규열, 윤수근, 유연송, 허춘일, 윤병묵, 송병수, 김경종, 노종식, 김진걸, 최성락, 류주열
- (대학생) 이유로, 문다성, 조용혁, 이지해, 정시은
- (고등학생) 송연우, 홍기윤, 김지우

◎ **제33대 윤수근 회장 이임인사**

◎ **제34대 유연송 회장 취임인사**

◎ **축사** 이미라 산림청차장

◎ **축사**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 **축사**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 **축사** 옥승엽 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위원회장

◎ **축사** 이경구 개군농협조합장

◎ **협회기 전달 및 공로패 수여**

제 2 부

◎ **임원위촉장 수여**

- 부회장

송병수, 이석천, 허춘일, 윤종규, 윤병묵, 김태호, 최순호, 김경수, 김종열, 박현주, 박미애

- **지회장**

강경호(서울), 김재용(경기), 김진걸(강원), 박정순(충북), 최성락(대전.세종.충남동부), 이충로(충남서부), 송인자(전북동부), 정혜심(전북서부), 송종일(전남동부), 이병관(광주.전남서부), 박중현(대구.경북), 권기택(경남중부), 김진기(경남서부), 박귀비(울산), 김준기(부산), 김승철(제주)

- **이사**

옥승엽, 이재흥, 양경복, 조병상, 이학종, 홍명호, 황수영, 임성빈, 안광훈, 신중우, 온형욱, 이은찬, 천윤기, 김경종, 주영근, 구본국, 김현길, 안형민, 최정우, 이기진, 서명주, 송시습, 조기철, 류재선, 박구성, 강정수, 박정기, 정준호, 김중원, 박정우, 김무철, 이제현, 오석진, 김도곤, 이종석, 오태윤

◎ **보고안건** 전차총회의사록, 2024년 감사보고, 2024년 사업실적, 결산 : 승인

◎ **의결안건** 2025년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윤수근 명예회장, 김규열, 봉기종 고문추대 : 승인

◎ **감사선출** 이근형, 이용규(선임장 수여)

◎ **공지사항**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농림수산식품수산부장관상 | 산림청 차장 전수

강정수(대구·경북지회) ㈜녹지원 대표, 안신(충남서부지회) 아남농원 대표

산림청장상 | 산림청 차장 전수

이진효(경남서부지회) 맹춘농원 대표, 최윤주(울산지회) 삼미조경(주) 대표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사)한국조경수협회장상
전북동부 지회장 송인자

우수지회 표창
최우수상 광주·전남서부지회 지회장 이병관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우수지회 표창
우수상 경기지회 지회장 김재용

우수지회 표창
충남서부지회 지회장 이충로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장학증서 수여

김지우, 문다성, 이유로, 홍기윤, 이지해, 정시은, 조용혁, 송연우

33대 윤수근 협회장 | 이임인사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34대 유연송 협회장 | 취임인사

이미라 산림청 차장 | 축사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 | 축사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 축사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위원회장 옥승엽 | 축사

이경구 개군농협조합장 | 축사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협회기 전달

공로패 수여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1부

(2025. 2. 19.)

단체사진

단체사진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5. 2. 19.)

위촉장 수여 | 부회장

위촉장 수여 | 지회장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5. 2. 19.)

위촉장 수여 | 이사

울산지회 오석진

의사진행 | 33대 윤수근 협회장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5. 2. 19.)

감사보고
노종식, 이근형 감사

34대 유연송 협회장 | 의사진행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5. 2. 19.)

감사 선출
이근형, 이용규 감사

협회 운영자금 기탁

제59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 개최사진 2부

(2025. 2. 19.)

총회장 전경

총회장 전경

NEWS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

01. 일 시 2024년 12월 23일 (월) 14:00~16:00

02. 장 소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대회의실

03. 참석자 윤수근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및 임업단체장
임상섭 산림청장, 이미라 산림청차장, 처장, 각 국장 및 관계관

04. 내 용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지원 확대(산림사업종합자금) 등 건의

NEWS 2024년 하반기 감사

01. 일 시 2025년 1월 8일 (수) 10:00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03. 감 사 노종식, 이근형

04. 내 용 업무서류 및 회계장부 일체

NEWS 2025년 예산·자재 심의회의 개최

01. 일 시 2025년 1월 14일(화) 10:30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03. 참석자 예산·자재심의위원

04. 내 용
- 2024년 감사, 결산 보고
-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검토
- 2025년 자재 공금단가 결정 및 자재유통사업 활성화 방안 토의

NEWS

2025년 제1차 이사회

01.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11:00

02. 장 소 계룡스파텔 백제홀

03. 참석자 47명 (위임장 16장 포함)

04. 내 용 **보고안건**

- 제1호 전차 이사회 의사록 낭독
- 제2호 감사보고
- 제3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의결안건

- 제1호 2024년 결산
- 제2호 2025년 사업계획(안)
- 제3호 2025년 예산(안)
- 제4호 정관개정의 건
- 제5호 기타 의결안건

한국임업진흥원 :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서비스 안내

협회장 인사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윤수근

감사보고 이근형 감사 노종식 감사

NEWS 2025년 제1차 이사회

이사회 전경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서비스 안내

NEWS 제1차 장학위원회의 개최

01. 일 시 2025년 2월 5일 (수) 10:30

02. 장 소 계룡스파텔 백제홀

03. 참석자 장학위원 13명

04. 내 용 2025년 장학생 접수 현황 보고
2025년 장학기금 조성 현황 보고
2025년 장학생 선정
기타토의

NEWS 2025년 제22회 조경의 날 표창 수상

01. 일 시 2025년 3월 4일(화)

02. 장 소 서울 건설회관

03. 참석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한국조경수협회장 유연송 등 160명

04. 내 용 - 자랑스러운 조경인상 유연송 회장
- 서울시장 표창 강경호 서울지회장

NEWS 2025년 제33회 청풍분재전 대통령상 수상

01. 일 시 2025년 2월 27일(목) ~ 3월 2일(일)

02. 장 소 청주 예술의 전당(2층 대전시실)

03. 내 용 이석천 부회장 대만 대통령상 우수상 수상
에이미 리앙교수 대만 타이페이
에이미리앙 본사이 박물관장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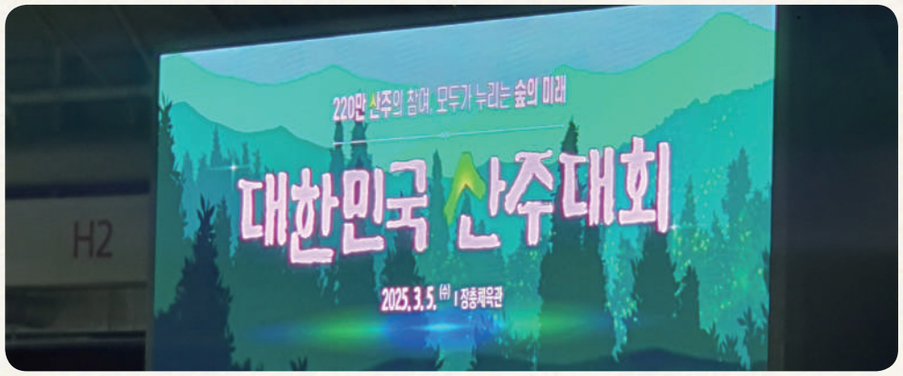
NEWS

대한민국 산주대회 '220만 산주의 참여, 모두가 누리는 숲의 미래'

01. 일 시 2025년 3월 5일(수) 11:00~16:00

02. 장 소 서울 장충체육관

03. 참석자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유연송 등 3,800명



NEWS

강원지회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수상

01.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1:00

02. 장 소 춘천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03. 내 용 김진걸 강원지회장 산림환경대상 수상

NEWS

경남중부지회
제34회 경남중부지회 정기총회 개최

01. 일 시 2024년 12월 16일 (월)

02. 장 소 경남중부지회원

03. 내 용 - 신임임원선출 : 지회장 권기택, 부지회장 유정일,
사무국장 김중원, 재무국장 신성욱 등
-모범회원 표창 : 권기택, 박정기, 허태훈 (순금뱃지 증정)
-2024년 결산 및 2025년도 역점사업 협의 등

NEWS

전북서부지회
이사회 개최

01.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02. 장 소 전북 김제

03. 참석자 전북서부지회 정혜심 지회장, 이사 등

04. 내 용 - 정혜심 지회장 만장일치로 차기 지회장 추대
- 최정우 회원 사무국장 추대
- 안형민, 최정우 회원 중앙회 이사 선임

NEWS 경기지회 2025년 선진지 견학

01. 일 시 2025년 2월 13(목)~14일(금)

02. 장 소 곡성군, 순천시 일대

03. 참석자 김재용 경기지회장, 이학종 경기지회 사무국장 등
지회 회원 13명

04. 내 용 - 컨테이너 재배농장 등 선진지 견학
㈜옥담, 화수조경, 학구식물원, 순천만가든마켓(주),
순천만국가정원, 농업회사법인 조경마루 등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제35회 정기총회

01. 일 시 2025년 2월 14일 (금) 16:00~

02. 장 소 JS웨딩컨벤션

03. 참석자 강기정 광주시장, 여운식 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병관 지회장, 지회 회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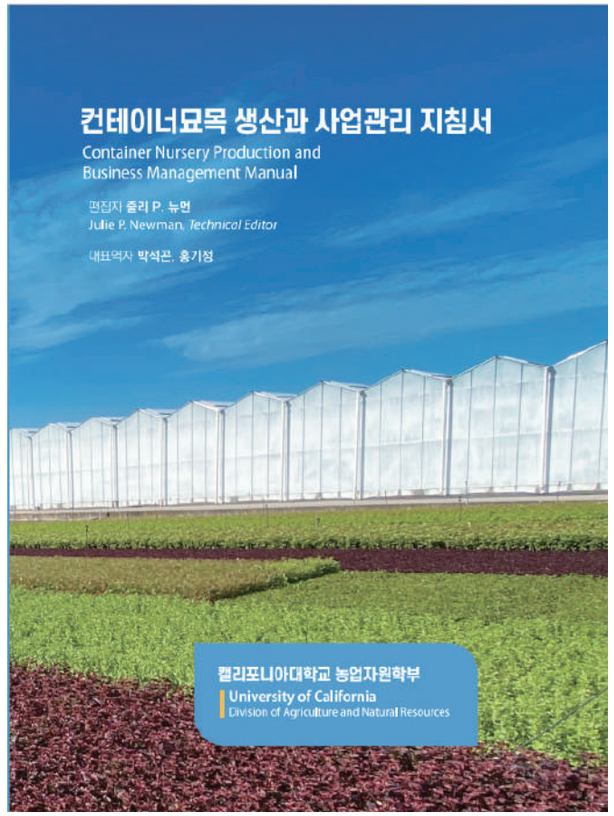
04. 내 용 상패 및 공로패 수여
- 광주시장상 박순종 회원
- (사)한국조경수협회 표창 전명권 회원
- 지회장 공로패 김공채 회원

지속 가능한 조경수 산업을 위한 신간 소개

『 컨테이너묘목 생산과 사업관리 지침서 』

박석곤

국립순천대학교
조경학전공 교수



컨테이너묘목 생산과 사업관리 지침서 표지

조경수 산업은 지금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컨테이너 재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전통적인 노지재배 방식이 오랫동안 주를 이루면서 그 보급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 종사자의 노령화, 노동력 부족, 관리비 증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더 이상 재배방식의 혁신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컨테이너묘목 생산방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컨테이너묘목 생산과 사업관리 지침서(Container Nursery Production and Business Management)』 번역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번역서는 컨테이너묘목 생산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재배기술, 시설 구축, 병해충 관리, 사업경영 전략까지 조경수 생산업 전반을 폭넓게 다룬 실용적인 지침서다. 총 다섯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조경식물 산업의 역사와 개요를 소개한다. 제2부는 묘목농장 부지 선정, 시설과 장비 구축,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기반 구축을 자세히 안내한다. 제3부에서는 토양 및 생육배지, 영양 공급, 관개 방법, 유출수 관리 등 생산과 관리의 핵심 기술을 다루고, 제4부에서는 병해충 관리, 잡초 및 유해동물 방제, 침입 병해충의 대응 방안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사업 운영, 마케팅 전략, 노동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조경수 생산을 위한 경영적 요소를 정리했다.

특히 이 책은『컨테이너재배연구회(회장 한성일, 총무 서필석)』의 역자들이 국내 현장 실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해설했다. 또한 한국의 재배 환경과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상세한 주석을 추가하고, 미국식 단위계를 국제 표준 단위계로 바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꼼꼼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국내 조경수 생산자와 연구자들이 컨테이너묘목 생산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수 생산자, 설계자, 조경회사 관계자, 연구자, 농업기관과 정책 담당자는 물론, 조경수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묘목 생산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농장에서는 즉시 현장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기존의 노지재배 방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생산 불안정, 지속해서 늘어나는 관리 비용과 노동력 부족, 기술 단절이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조경수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컨테이너묘목 생산방식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자동화와 기계화 기술로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적은 인원으로도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묘목 생산이 가능해진다.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해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뿌리 손상이 적어 식재 후 생존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친환경적 관리까지 가능하게 된다.

한국 조경수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하는데 이 책은 표준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생산자, 연구자,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컨테이너묘목 생산방식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이다. 본 서적을 통해 국내 조경수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가기를 기대한다.

박석곤

국립순천대 교수/이학박사
평생교육스쿨 학장
평생교육원 원장
그린스마트팜스쿨 조경학전공 교수

적정규모 · 실리경영 · 탄탄한 미래

대구 · 경북지회 「(주) 녹 지 원」

글 · 사진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 경남중부지회 **박 정 기**

(주)녹지원은 우리 협회 대구·경북지회 회원사이다. 본사는 경산시 성암로에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지점이 있다. 회원사는 조경 식재·시설물설치 전문건설업 면허회사이고 자회사 (주)자연과 숲은 식재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산은 옥천, 세종, 전주·완주와 더불어 우리나라 내륙의 수목생산지이자 유통 거점이다. 조경수·정원수·과수·특용수 선진지에 소재하여 나무시장의 흐름이 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진다. 회원사 재배포지는 가식장, 전시·판매장, 장비·자재창고, 사무실이 있는 경산시 임당동 85번지 임당농장이 사업장이다. 식재공사용 주요수목을 조달하는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1-1번지 농장은 주력포지이며, 의성군 점곡면과 금성면에 소나무·이팝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단풍나무·산딸나무·대왕참나무·칠엽수·산수유 등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다. 4개소 포지 면적 5ha는 시너지를 내기에 충분하고 관리 빈도와 출하(예상) 시점에 따라 수종·치수·수량·위치를 달리하는 선순환 구조로 효율성이 높다.

강정수대표는 2002년에 우리 협회에 가입한 중견 조경인이다. 대구·경북지회 지회장을 역임했고 본회 이사를 거쳐 2023년부터 부회장을 맡아 2년 임기를 마쳤다. 경남 합천 태생인 강 대표는 고교에서 농업을, 대학에서 임학을 전공하여 수목학 기초를 다졌다. 진주산업대학(현 경상국립대) 졸업 후 산림보다 조경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병역을 마친 다음 효자조경에 입사하여 조경수 생리와 적용에 관한 경험을 쌓았다. 농장과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에 미래를 찾는 안목까지 갖게 되어 조경수산업이 도시 어메니티를 높이는데 유망한 분야임을 확신하면서 자영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0년 경북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에 1ha 포지를 매입하여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칠엽수를 심으면서 본격적으로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였다. 2010년 ㈜녹지원을 설립하면서 조경수 생산과 더불어 녹색도시 조성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전문건설업 초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언제나 진심으로,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고 현재 약 5ha 농장에 30여 종 10,000여 주 양질의 조경수를 생산하고 있다. 굴취 인부에서 중간상까지, 수목납품 업자에서 도급공사 업주까지 산전 수전 경험칙은 오늘의 자양분이 되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녹지원은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다. 사무실도 농장도 군더더기 없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기술이 구현된 것 같다. 사무실과 창고가 있고 전시장과 가식장을 겸하는 임당농장은 도심 접근성이 좋은 장점은 살리되 관리 부담이 따르는 규모는 그야말로 적정규모이다. 소나무와 서양측백류를 비롯한 거래빈도 높은 다양한 수종과 수세회복(양생) 중이거나 출하를 기다리는 수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정원 같다.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은 넓고 쇄석을 다져 흙이 묻지 않는다. 조형부터 공사목까지 다양한 규격의 소나무는 전정 시기를 놓치지 않은 수형이다.

임당농장은 강 대표의 성실과 부지런함, 곧 '뚝심'이 잘 묻어난다. 강 대표는 수목납품을 20년 넘게 해왔지만 지금도 해마다 묘목을 구해 심는다. 그리고 남다른 친화력에 소통능력이 뛰어나다. 나무는 재고가 없어야 하고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에 특수목은 없고 피크닉탁자는 있다.

금호농장은 주력농장답게 넓은 포지에 설계빈도 높은 조경수가 종조성을 이룬다. 약방의 감초역(役)을 망라하였다. 상록 : 낙엽 성상비율과 입목 간격이 적정하다. 산뜻한 간판에 뒤처진 나무가 없어 살아 있는 농장이다. 어쩌다 출하시기를 놓친 나무는 분(盆)돌림이나 강전정하여 시일 경과를 기다린다.

강 대표는 조경수 재배, 유통, 공사, 조경수산업 삼박자를 섭렵하여 수요자 기호를 잘 읽는다. 농장은 미기후가 좋고 평지지형에 토질도 나무랄 데 없으니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 수종·수형·규격별 훈련목이 수관이 묶인 채로 출하를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10분 내로 상차가 가능하다.

납품할 소나무 사진을 찍고, 입식할 묘목을 살피는 강 대표

✓ 호황기가 길었다.

조경 업역의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남들보다 길었던 호황기에 재배 포지를 마련하고 실리경영 기반을 다졌기에 불황의 파고가 낮다고 말한다.

✓ 주식 한 번 안했다.

조경수 외길을 걸으며 한 눈 팔지 않았고 그럴 겨를도 없었다. 매년 새로운 수종을 선정하여 입식하기에도 바빴다며 조경수 재배와 조경업은 주식 투자보다 낫다는 설명이다.

✓ 좋은 나무만 심는다.

수목납품부터 조경공사까지 25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언제나 좋은 나무를 납품하고 제대로 심었기에 유명 건설사와 에버랜드 등과 거래를 하였고 식재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었다.

장송부터 반송까지 다양한 소나무류

✓ 적정규모와 선순환이 중요, 혼자 다하려 하지 않는다.

재배포지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적정한 규모일 때 시너지를 내고, 인건비와 제경비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는 실리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강 대표는 혼자 다하려 하지 않는다. 자력 생산보다 경제적이면 밭떼기로 조경수를 사 들이기도 한다. 적정한 체중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사람도 사업도 지속가능하다.

✓ 나무는 주인을 닮는다.

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사람을 보고 나무를 산다. 거래는 사람이 하니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을 보면 그가 키운 나무를 알 수 있고 그의 솜씨까지 가늠이 된다. 조경인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강 대표는 남다른 눈썰미와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일처리에 미래를 여는 혜안을 가졌기에 그가 키운 나무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

믿음을 주는 나무, 믿음을 주는 사람은 장관상에 빛난다. ㈜녹지원 강정수 대표는 연고도 없는 대구·경북에서 평지(논밭) 포지 5ha를 가지고 불황을 모르는 조경인이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좋은 나무를 심는다, 새벽에 일어나고 열심히 일 하되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산다. 평범한 것 같으나 실천은 쉽지 않은데 강 대표는 언제나 진심이다. 조성에서 관리로, 조경 업역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래 청사진을 귀띔해 주었다. 청출어람 강 대표 아들은 조경학을 전공했고 현재 조경직 공무원이다. 부자지간을 넘어 정보와 기술의 멘토·멘티가 되는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

㈜녹 지 원

(38501)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로 129, 2층

전화 : 053)852-3889 전송 : 053)743-3887

휴대전화 : 010-3819-3889 (강정수)

나무(木)를 알면, 숲(林)이 보인다.

제 1장 나무생각

정규종
나무의사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예로부터 나무는 정자목, 당산목, 마을숲을 이루며 마을을 지키는 상징이자 마을의 중심으로 여겼다. 샤마니즘에서 시작된 자연의 숭배는 나무(木)를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는 하늘의 공기와 땅의 물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가진 유기물을 생성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새로운 생명탄생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햇빛만이 존재하며, 이를 유기물이라는 실체로 만들어내는 나무, 얼마나 고마운가.

외부의 햇빛을 지구 내의 자원으로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한다. 하늘의 떠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CO_2에서 탄소c만을 추출하여 이를 합성하는 것, 그리고 산소O_2를 버리는 작업이다. 합성된 탄소는 에너지를 담은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버려진 산소는 합성된 포도당을 다시 에너지로 발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모든 생명의 중심에 나무가 있다.

<그림 1> 하늘과 땅을 잇는 메신저

① 광합성에서 삶을 배우다.

누구나 한번은 '나' 라는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 밤잠을 설친 적이 있듯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겪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그러했듯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

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이 이슈가 되고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며,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는 변화되고 있다.

자연을 인간 생존의 도구가 아닌 생태계에서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복잡한 생태계를 정의하고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다. 실타래처럼 엉킨 생태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에 대한 단초를 찾아야 한다.

시작은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모든 생명체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찾는다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생명체는 유기물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탄소이다.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다. 잠시 동안 하늘을 떠도는 기체 탄소를 제외하고 말이다.

우리의 몸의 골격도 탄소의 사슬이C-C-C 바탕이 된다. 이 탄소의 결합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시작은 탄소C를 결합시키는 광합성이다. 에너지를 담은 탄소 결합체$C_6H_{12}O_6$는 다시 나무가 버린 산소O_2를 통해 에너지$_{ATP}$로 전환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가.

다시 말해 생명체의 구조는 탄소의 쇠사슬로 되어 있으며, 생명에너지는 이 탄소를 끊어내면서 발생한다. 그렇게 생명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이 삶이 끝나는 순간, 산소O_2가 저승사자처럼 나타나 생명체의 탄소C 하나하나를 끌고 이산화탄소CO_2가 되어 하늘로 올

〈그림 2〉 생명의 시작; 광합성

라간다. 자연의 순환인 것이다.

언젠가 삶은 마감한 이산화탄소의 모습을 한 우리는 나무를 통해 다른 유기물로 만들어질 것이다. 생태계의 탄소 순환은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것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인류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자연을 바라보는 광합성철학이다.

② 흔한 질소는 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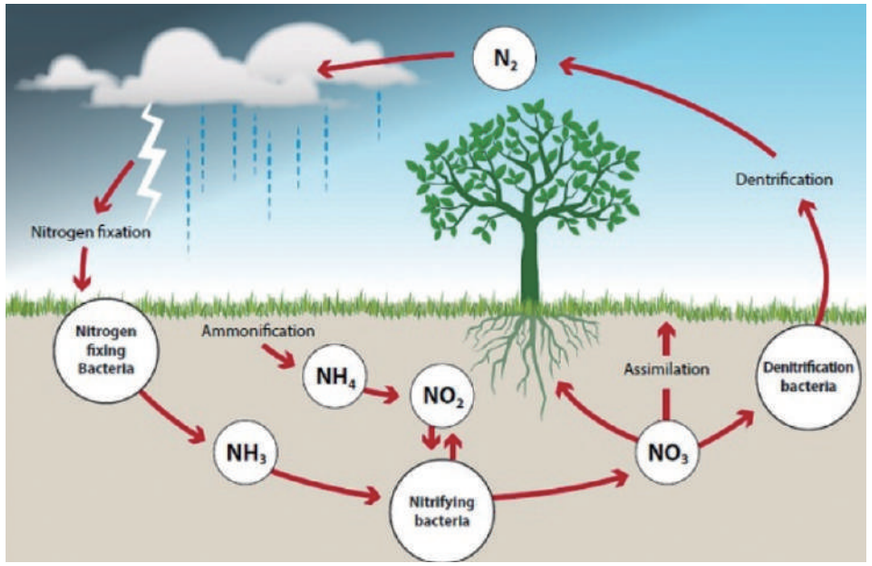
최근에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다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탄산음료의 자리를 단백질음료가 차지하였으니 말이다. 건강이 이슈가 된 것은 오래전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야 웰빙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였는데 이제는 삶의 중심에 있다. 단백질음료는 이러한 시류에 단연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다.

탄소가 에너지라고 하면 질소는 생명체의 형체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로 에너지를 담은 기본바탕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제는 그 바탕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형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단백질에서부터 시작이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필요한데 다행히 질소N_2는 대기 중에 78%를 차지할 정도로 널려 있다. 질소N가 2개 결합 되어 질소분자$_{N\equiv N}$로 하늘을 떠돌아다닌다. 서로 어찌나 친한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만약 질소결합이 약해 삼중결합을 때어내 호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공룡보다 더 거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인 질소고정균이며 뿌리혹박테리아뿐이다. 이들은 질소N_2의 결합을 분리하여 다른 원소와 안정적으로 부착되게 하여 하늘로 도망치려는 것을 붙잡아둔다.

나무는 붙잡힌 질소를 흡수하여 생명의 코드를 담고 있는 DNA를 통해 생김새를 만들어내고 기능을 부여하는 단백질이 생성한다. DNA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동물들이 이용한다. 질소를 땅에 고정되는 작업까지는 미생물들이 한다고 치지만 이를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작업은 식물의 몫이다. 그래서 초식동물들



〈그림 3〉 질소의 순환

은 보이지 않던 질소를 나무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통해 쉽게 얻어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사용하고, 포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단백질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돌아가게 된다. 이처럼 나무는 광합성으로 탄소를 결합하여 에너지와 생명의 바탕을 만들며 질소를 합성하여 생명의 형체와 기능을 부여한다. 나무가 겉모습뿐 아니라 씀씀이도 아름다운 것은 이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로 움직이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질소를 구하는 짓을 한다.

그러나 탄소화합물은 질적으로 일정하지만 질소화합물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질소의 양이 많은 것들이 있고 적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의 도움으로 탄소를 힘들이지 않고 구하지만 질소는 부족하여 생명들의 혼탁한 먹이사슬이 얽히고설킨다.

세렝게티의 초원을 보라. 생산자가 적고 벼과식물으로 이루어진 초원에서는 질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질소를 구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인다. 점점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더 포악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아마 풀보다는 질소가 풍부한 나무가 있었다면 얼룩말이 질소가 풍부한 풀을 찾기 위한 대이동의 험난한 여정도 없을 것이며, 이빨을 드러낸 사자도 조금은 온순해지지 않을까?

③ 잘 썩냐, 않썩냐 : 질소와 탄소 그리고 분해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생계 걱정에 외할머니에게 돌봄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 돌봄을 당한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지만, 6.25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만 사시는 몇 가구 없는 시골에서 10대 초반을 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건 화장실 가는 것이었다. 외양간이 곧 화장실이었다. 무서운 것은 둘째치고 소똥이 쌓여 있는 옆에서 볼일을 봐야 했기에 더욱 그랬다. 볼일을 보는 곳에는 항상 부뚜막에서 긁어모은 잿더미와 볏짚이 있었고, 볼일을 본 후에는 그것들을 같이 섞어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심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냄새는 휘발성 물질이다. 휘발성 물질은 빠른 분해작용으로 발생하고 불완전하게 분해될 경우 더욱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떤 동물의 배설물이든 배설물은 동식물의 사체를 잘게 쪼개 만들어진 미생물의 먹이 자원이 된다. 사람으로 따지면 소화가 잘되게 죽처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에 더해 질소가 많으면 미생물은 신이 나서 더욱 빠르게 맛있게 식사를 한다. 그러나 탄소가 많으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 이것이 잘썩냐, 않 썩냐의 원리이다.

화학재료가 부족했던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생활하였다. 집을 지을 때도 목재와 볏짚 그리고 흙을 사용해서 집을 짓고 논농사가 많았던 곳에서는 볏짚을 지붕에 올려 초가집을 지었으며, 산골 깊은 곳에서는 목재로 된 널빤지를 지붕에 이은 너와집을 지었다. 물이 부족한 섬에서는 빗물을 받을 때에도 짚을 이용하여 혹시라도 있을 세균을 걸러 내었다.

자연재료는 썩게 마련이다. 그러나 견고한 재료가 없었던 옛날에는 썩는 속도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랐다. 썩는다는 의미는 미생물이 분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질소와 탄소의 비율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식물들이 햇볕에 대한 치열한 경쟁에 몰두할 때 동물들은 질소에 대한 경쟁에 빠져 있다. 질소는 동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이다.

잘 썩지 않는 재료는 동물들, 미생물들 좋아하는 질소가 부족한 재료이다. 우리로 따지면 밥과 반찬인 것이다. 탄소가 밥이라고 하면 질소는 반찬이다. 자연계에서는 적어도 밥 서른 술 뜨면 반찬 한번은 먹어야 유기물이 분해가 된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와 줄기는 100대 1

이상이다. 미생물이 쉽게 접근하지도, 썩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는 이렇게 질소가 없는 섬유소를 만들어 잘 썩지 않게 만들었다. 그런데 곰팡이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해자로서 최강인 곰팡이는 더욱 더 진화하여 목질을 탐내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버섯이라는 놈이 곰팡이균에서는 가장 강력한 분해자부후균이다. 3억 5천년전 석탄기에 썩지 않은 식물들이 석탄, 석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나무를 썩힐 수 있는 강력한 놈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석탄기가 끝난 것은 담자균 다시 말해 백색부후균의 등장과 함께 끝이 났다. 이러한 반격은 나무에 치명적이었지만 나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나무도 또 다른 차원의 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게 바로 리그린lignin이다. 나무의 25%는 페놀성분이 기본구조로 되어 있는 리그린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목재를 단단하게 썩지 않게 하는 나무의 최고 방어물질이다.

④ 생명으로 쓰는 가계부

2011년 '인타임'이라는 SF영화 속 세계에서는 하루종일 일하며 시간으로 그 댓가를 받아 생명을 유지한다. 만약 벌어들인 시간을 낭비하여 모두 소모되면 생명은 끝이 난다. 갑작스런 영화 얘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무도 단 한 가지 햇빛을 받지 못해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다른 방도가 없다.

나무는 햇볕 드는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양분을 만들어낸다. 잎과 가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빛에너지가 몸체를 만드는 신기함을 느끼게 된다. 시간이 지나 남아 도는 영양물질은 저장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꽃과 열매를 맺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빛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에너지를 축적하여 어떻게 꽃과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나무의 거대한 몸체를 유지하기 위해 빛을 먹어 되겠는가? 매일 소 한 마리쯤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연은 오묘하다. 나무는 먹여 살려야 하는 세포가 많지 않다.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살아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 혈액을 통해 각각의 세포는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나무는 살아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몸체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살아 있는 잎도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겨울에는 떨궈 버린다. 나무는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운동도 하지 않은 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다. 그게 바로 움직이지 않는 나무이다.

⑤ 사람의 병, 나무의 병

우리는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거나 내가 어릴 적 할머니들은 장롱에 꼭꼭 싸 놓은 마이신세균약을 드셨는데 이는 세균을 죽이는 성분이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는 세포유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혈구라는 식세포와 항생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음껏 옮겨 다닐 수 있어 전파와 감염이 쉽게 이루어져 세균과 바이러스에 취약한 반면 죽어 있는 것을 썩이는부생성 곰팡이에는 강한 모습을 보인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면역결핍증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곤 말이다.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병을 굳이 언급하자면 무좀, 비듬, 백선 등이 정도이다. 이와 달리 나무는 곰팡이병에 취약하다. 나무의 병을 발생시키는 병균은 곰팡이병이 90% 이상일 정도이니 말이다. 나무의 병의 원인에서도 알 수 있듯 나무는 죽어 있는 조직이 많다. 에너지를 모으는 광합성을 위해 필요한 잎은 살아 있는 조직이 많은 반면, 종이의 원료인 섬유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줄기는 죽은 조직이 대부분이다. 가끔 살아 있는 나무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도 줄기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 썩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안쪽이 아주 썩은 것이고 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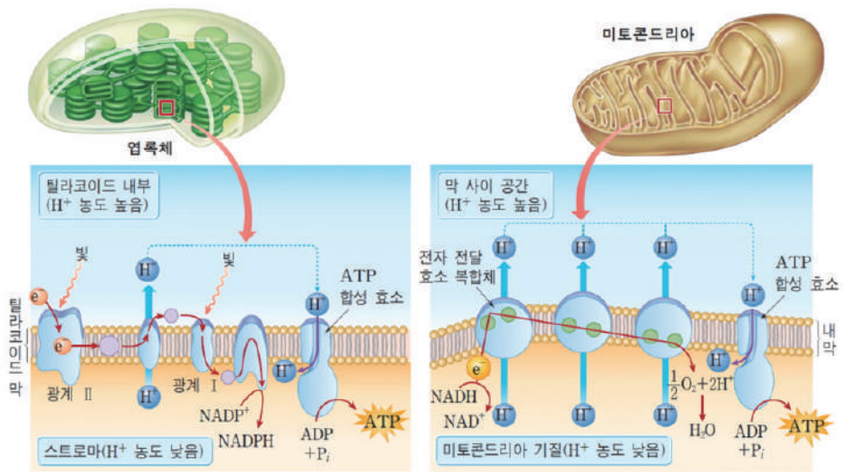
〈그림 4〉 나무의 병; 곰팡이

와 가까운 쪽의 얇은 막을 하고 있는 외곽은 살아 있는 세포형성층가 있어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으로부터 방어를 한다. 이 곳이 뚫리면 나무는 쉽게 무너진다. 사람과 나무의 병원체가 다른 또 다른 이유는 기생생물이 우리를 숙주로 바라볼 때 인간은 단지 한 종일뿐이다. 나무는 몇 만종에 이르며 이들이 다양한 사회를 이루기 때문이다.

⑥ 자급자족을 넘어

2시간쯤 지났을까? 글을 쓰다 보니 배가 고프다. 또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에 배골이를 하면 먹는 것에도 귀차니즘이 일어난다.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약을 먹으면 하루종일 먹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문득 떠오른다.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 항상 에너지물질을 섭취해야 한다. 얼마나 불편한가. 그에 비해 나무는 햇빛에서 에너지물질을 받아 합성을 한다. 그리고 이를 저장했다가 사용한다.

나무의 유세포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엽록체chloroplast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나무는 엽록체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유기물에 저장하고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는 유기물을 소비를 하며 에너지ATP를 획득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그림 5〉 나무의 유세포에 있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들

나무는 엽록체에서 유기물의 생산이 항상 미토콘드리아의 소비보다는 많아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엽록체에서의 대사활동을 광합성이라고 하며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대사활동을 호흡이라고 한다.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야 살아간다. 소비가 많아지면 죽게 되는 게 나무다. 다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하는 햇빛은 나무에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소비만 한다. 생산이 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끝임없이 받아들여야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경제논리를 따진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⑦ 개체이거나 조직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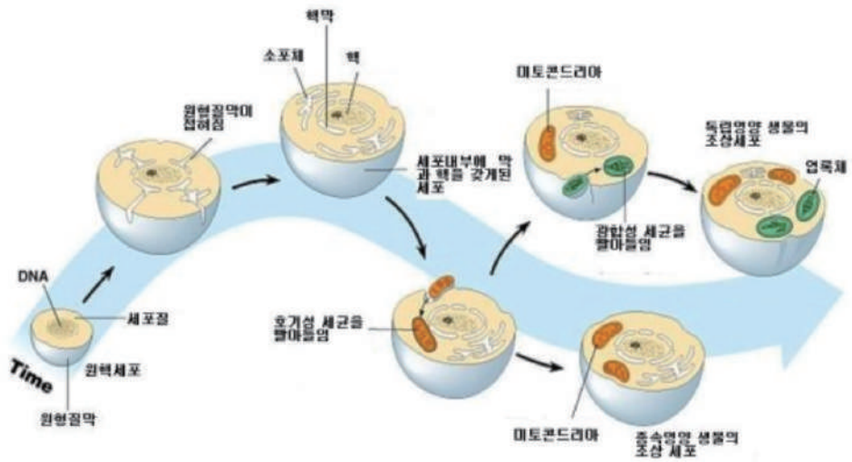
우리 동네 나무들은 팔이 없다. 내가 사는 서울의 외곽에 있는 구도심이라 아파트든 가로수든 오래되었다. 그러니 나무들은 거침없이 자라났고 잘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짤려나갔다. 그럼에도 나무는 굳건히 다시 작은 손을 뻗기 시작하여 다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더욱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세포공생설에 따라 동물세포가 우선이고 식물세포가 이후에 생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뜬금없는 생각을 하곤 한다. 왜 식물은 동물처럼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물로부터 온갖 피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인류의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역사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적응하지 못하면 사멸하는 '자연선택'인 것이다.

동물은 소비를 전제로 하기에 식물을 먹든 약한 놈을 잡아먹든 유기물을 소비하면서 생활한다.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먹고 먹히는 무수한 전투와 싸움에서 이겨나갔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동물은 행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그러나 나무는 햇볕 드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높이 올라가는 경쟁을 한다. 목표가 명확하며 단순하다.

아직 식물은 조직세포로 간단한 기관을 형성했을 뿐 군체colony나 조직organic body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 아직 나무의 생명은 하나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생명체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삶이 유리할지도 모른다. 가지 하나가 죽어도 잎이 죽어도, 뿌리의 일부가 죽어도 살아남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의

형상이 아닌 살아 있는 세포들이 활동하는 개미군단과 같은 조직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무를 의인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무는 아직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친구처럼 지내고 싶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림 6〉 동물과 식물세포의 진화

⑧ 불멸의 삶을 꿈꾸며

나무는 이론적으로는 무한 생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동물과 달리, 나무는 특정 부위(분열조직 : meristem)에서만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식물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정단분열조직$_{\text{apical meristem}}$은 전체형성능$_{\text{totypotency}}$를 가진 세포들의 집합체로 어느 세포로든 분화가 가능하며, 무한 분열이 가능하다.

지금껏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4,800살을 살아온 주목과에 속하는 브리슬콘소나무$_{Pinus\ lngaeva}$이며, 5000년 이상을 살아온 나무도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 선정된 요세미티공원의 거대한 자이언트세쿼이아군락은 3,000살에서 5,000살이 넘는 나무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생명체인 셔먼장군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세쿼이아나무는 지름이 11m가 넘는다. 높이 면에서도 탁월하다. 5년 전 미국 서부 해안가를 일주하다 잠시 들린 Redwood 국립공원에는 키큰 나무가 110m로 끝을 볼 수 없게 높이 자라 하늘을 뚫을 기세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이언트세쿼이아 숲을 보지도 않고 단지 중력을 고려해 모세관현상으로 물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생명도 크기도 무한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아무리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치더라도 어찌하여 1만 년 이상의 나무는 없는 것일까. 하나라도 존재해야 하지 않는가? 그 시기는 빙하로 덮인 제 4기 빙하기 이전의 식물이라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웬만큼 버티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지 않을까? 이처럼 나무는 피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무의 생리적인 면에서는 무한생장이 가능하나 환경으로 인해 고사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림 7〉 지구최대의 생명체인 나무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속 3편
Genus *Hibiscus*

김종근

글/사진 :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무궁화 '바이컬러'
H. syriacus 'Bicolor'

아사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피는 연분홍빛 하얀색 반겹꽃이 매력적이다. 꽃잎에는 연한 분홍색을 띠는 아사달계 무늬가 불규칙하게 자리잡고 꽃잎 중앙에는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발달한다. 꽃잎 안쪽에는 수술의 일부가 퇴화하면서 변한 속꽃잎이 약 30개 정도 발달한다. 꽃의 지름은 약 8-9cm로 중간 크기 정도이며 꽃 중앙부의 붉은색 단심 무늬와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붉은색 단심선이 발달한다. 잎 길이는 약 5cm, 폭은 약 3cm로 작은 편이고 잎자루는 약 0.5cm 정도 된다. 잎 형태는 달걀 모양과 비슷하고 잎 끝부분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 밑부분은 폭이 약간 넓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고 잎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고 약한 편이다. 전체 생김새는 하늘을 향해 가지가 촘촘하게 자란다. 1972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자라던 재래종 무궁화에 도입종 무궁화를 교배하여 선발 육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블루 넘버원'
H. syriacus 'Blue No. 1'

청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파란빛 자주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 중앙에는 진붉은색을 띠는 단심 무늬가 뚜렷하게 발달하는데 단심선은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길게 퍼져 나간다. 꽃잎의 폭은 넓은 편이라 서로 많이 겹쳐지며 평평하게 완전히 활짝 펴져서 벌어지며 핀다. 꽃의 지름은 약 13cm에 달할 정도로 큰 편이며 꽃잎의 길이는 약 6-8cm, 폭은 약 6-7cm, 꽃 중앙부 단심의

H. syriacus 'Bicolor'
무궁화 '바이컬러'

H. syriacus 'Blue No. 1'
무궁화 '블루 넘버원'

지름은 약 5cm에 이른다. 꽃이 크면서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여름철 블루를 테마로 하는 정원에 식재하면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무궁화 '본조이아' (수줍어)

H. syriacus 'Bonjoia'

꽃 색깔이 가장 붉은색을 띠는 홍단심계 품종 중 하나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진붉은색

Hibiscus syriacus 'Bonjoia'
무궁화 '본조이아'(수줍어)

무궁화 '본조이아'(수줍어)

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쳐지면서 완전히 활짝 피지 않으며 약간 안쪽을 향하여 핀다. 잎의 전체적인 모양은 마름모형이며 잎끝은 꼬리처럼 길고 잎의 밑부분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파여 갈라지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심하고 예리하여 마치 닭벼슬과 비슷한 모양이다. 전체 생김새는 좁게 직립하는 모양이며 적응성이 다소 약해서 나무의 생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수줍어'라는 품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1969-1970년에 서울대학교가 외국으로부터 처음 도입하여 1983년 '수줍어'로 불렀고 그 후 1990년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무궁화 '불 드 푀'

H. syriacus 'Boule de Feu'

유럽의 벨기에에서 선발된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연한 자주빛 분홍색으로 피는 겹꽃이 매력적이며 꽃 중앙에는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뚜렷하게 발달한다. 겹으로 피는 꽃의 모양이 마치 분홍색 발레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꽃은 수술이 퇴화하여 전부 꽃잎으로 변하는데 기본 꽃잎이 속꽃잎보

Hibiscus syriacus 'Boule de Feu'
무궁화 '불 드 푀'

다 작고 자유롭게 배열된다. 꽃의 지름은 7cm 내외로 중간 크기 정도이고 다소 일그러지며 속꽃잎보다 크기가 작다. 잎은 작은 편으로 길이는 약 5cm, 폭은 약 3cm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약 0.7cm 정도에 달한다. 잎의 모양은 약간 길쭉한 달걀 모양으로 잎끝은 가늘고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 부분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파여 갈라져 있으며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심하지 않고 잔잔한 편이다. 전반적인 생장력은 강한 편이라 일반 정원에서 식재 후 관리하기에도 무난하며 훌륭한 소재이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말경 서울대학교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궁화 '브레돈 스프링스'

H. syriacus 'Bredon Springs'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보랏빛 분홍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꽃 중앙에 진붉은색 단심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치면서 완전히 펴지면서 활짝 평평하게 피며 꽃이 질 때는 파란빛 자주색을 띤다. 꽃의 지름은 10-12cm 내외로 중간 크기 정도이다. 기본 꽃잎은 보통은 5장이지만 간혹 6장일 때도 있으며 작은 속꽃잎이 발생하기도 한다. 꽃 중앙의 빨간색 단심 무늬는 아주 작은 편이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지는 단심선도 아주 약하다. 잎 길이는 약 5cm, 폭은 약 3.5cm로 다소 작은 편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0.8cm 정도 된다. 잎의 형태는 달걀 모양이며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고 잎의 밑부분은 둥글다. 잎몸은 깊게 파여 갈라지며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약하고 끝이 다소 둔하다. 1989년 영국의 로널드 윌리엄 시드웰(Ronald William Sidwell)이

Hibiscus syriacus 'Bredon Springs'
무궁화 '브레돈 스프링스'

선발 육종한 품종으로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도입되었다.

무궁화 '불꽃'

H. syriacus 'Bulkkot'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분홍색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 중심부에는 진붉은색 단심이 크고 강하게 발달하며 진붉은색 단심선도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길게 퍼져 나간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치면서 완전히 활짝 벌어지지 않으며 다소 안쪽을 향하여 핀다. 꽃의 지름은 12cm 내외로 중간 크기 정도이며 꽃잎은 연보랏빛을 띠는 분홍색으로 속꽃잎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잎 길이는 약 8cm, 폭은 약 4cm 정도로 중간 크기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0.7cm 정도 된다. 잎의 형태는 달걀 모양이고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끝이 다소 둥근 V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파여 갈라져 있고 잎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고 잔잔한 편이다. 1983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재래종 무궁화 중에 선발 육종되었다.

Hibiscus syriacus 'Bulkkot'
무궁화 '불꽃'

무궁화 '불새'

H. syriacus 'Bulsae'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이상 자줏빛 진분홍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꽃 중앙에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발달한다. 꽃은 폭이 좁은 꽃잎이 서로 떨어져 완전히 활짝 벌어지지 않으며 다소 안쪽을 향하여 핀다. 꽃의 지름은 10cm 내외로 중간 크기이고 기본 꽃잎은 보통 5장이지만 간혹 6장일 때도 있으며 작은 속꽃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잎은 중간 크기로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4-5cm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약 0.7cm 정도 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U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파여 갈라지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전체 생김새는 직립형으로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자란다. 1984년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 무궁화 '영광' 외 11품종의 무궁화로부터 자연방임수분(open pollination)된 종자를 파종하여 실생(實生, seedling) 번식된 개체 중에서 1985년에 선발 후 1990년 한국무궁화연구회에서 명명하였다. '불새'라는 품종명은 정열적인 진붉은색을 띠는 상상 속의 새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Hibiscus syriacus 'Bulsae'
무궁화 '불새'

무궁화 '불새'

무궁화 '별이'

H. syriacus 'Byeol-i'

키가 약 70cm 내외까지 작게 자라는 백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하얀 꽃잎 바탕에 진붉은색 단심이 발달하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잎은 가늘고 길쭉하여 서로 겹치지 않으며 활짝 벌어져 핀다. 꽃의 지름은 11cm 내외로 중간 크기이며 꽃 중앙부 단심의 길이는 약 3-4cm로 길게 발달하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도 길게 퍼져 나간다. 잎 길이는 약 8cm, 폭은 약 6cm로 중간 정도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0.9cm 정도 된다. 잎 모양은 약간 길쭉한 타원 모양이고 잎끝은 다소 무디고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파여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없거나 아주 약하다. 2008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무궁화 '개량단심'을 교배하여 2001년에 선발하였다.

Hibiscus syriacus 'Byeol-i'
무궁화 '별이'

무궁화 '병화'

H. syriacus 'Byeonghwa'(Little Kim Violet')

Hibiscus syriacus 'Byeonghwa' (Little Kim Violet')
무궁화 '병화'

무궁화 '병화'

약 2m까지 자라는 자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연보랏빛 분홍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 중앙에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발달하며 꽃잎은 서로 약간 겹쳐지면서 완전히 활짝 벌어지며 평평하게 핀다. 꽃의 지름은 7-12cm 정도로 중간 크기이며 꽃 중앙부 단심의 지름은 약 2cm이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잎은 작은 편으로 길이는 약 4-6cm, 폭은 약 3-5cm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0.5-2cm 정도이다. 잎 모양은 약간 긴 타원형이고 잎끝은 약간 무디고 잎밑은 둥근 모양에 가깝다. 잎몸이 약간 파여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없거나 아주 약하다. 생장력은 강한 편이며 가지는 하늘을 향해 위로 자란다. 무궁화 '안동'에 무궁화 '불새'를 교배하여 2008년 선발하였으며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무궁화 '안동'을 닮아 줄기는 조밀하게 자란다. 2016년 미국 스프링 메도우 너서리(Spring Meadow Nursery)에서 'Lil' Kim Violet'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무궁화 '청암'

H. syriacus 'Cheongam'('Chungam')

키가 약 70cm까지 작게 자라는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분홍색 꽃잎 중앙에 빨간색 단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은 폭이 좁은 꽃잎이 서로 떨어져서 완전히 활짝 평평하게 벌어져 핀다. 꽃의 지름은 약 11-12cm 내외로 중간 크기이며 꽃 중앙부 단심의 지름은 약 1-2cm로 작은 편이다. 잎 길이는 약 7-8cm, 폭은 약 4-5cm로 중간 크기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약 1cm 정도 된다. 잎 모양은 약간 길쭉한 타원형이고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의 밑부분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약한 편이다. 키도 작으면서 전체 생김새가 좁고 마디가 짧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 키우기에도 좋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무궁화 '안동3'에 무궁화 '개량자주 1호'를 교배하여 선발 육종하였다.

Hibiscus syriacus 'Cheongam'
무궁화 '청암'

무궁화 '청학'

H. syriacus 'Cheonghak'('Chunghak')

Hibiscus syriacus 'Cheonghak'
무궁화 '청학'

청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파란색으로 피는 꽃이 매력적이며 꽃 중앙에는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선명하게 발달한다. 자단심계 무궁화 '삼천리'의 꽃에 청단심계 무궁화 '영백'의 화분을 이용하여 교배한 품종이다. 파란색을 띠는 꽃잎의 끝 부분이 갈라지는 모양이 마치 푸른 학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블루를 테마로 하는 정원에 적용하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무궁화 '처용'

H. syriacus 'Cheoyong'

키가 약 70cm까지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는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자줏빛 분홍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Hibiscus syriacus 'Cheoyong'
무궁화 '처용'

무궁화 '처용'

꽃 중앙에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뚜렷하게 발달한다. 꽃잎 폭은 좁으면서 끝부분이 물결치는 모양이며 꽃잎 사이가 벌어져 바람개비 모양을 이룬다.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상태에서 암술머리가 봉오리 밖으로 나오며 꽃의 지름은 약 7cm 내외 정도 된다. 꽃 중앙의 붉은색 단심은 크지 않고, 꽃잎의 맥을 따라 중심부에서부터 방사상으로 퍼진 붉은색 단심선도 약한 편이다. 잎 길이는 약 6cm, 폭은 약 3-4cm로 중간 크기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약 0.8cm 정도 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끝이 다소 둥근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파여 갈라져 있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심하지 않다. 2002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무궁화 '안동'에 무궁화 '개량자주 1호'를 교배하여 선발 육종하였으며 품종명 '처용'은 신라 헌강왕 때 울산광역시 근처 바닷가에서 달밤에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돌아다닌 처용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무궁화 '칠보'

H. syriacus 'Chilbo'

자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약 80일 동안 연보랏빛 분홍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며 꽃 중앙에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선명하게 발달한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쳐지면서 완전히 활짝 벌어지지 않으며 약간 안쪽을 향해 핀다. 꽃의 지름은 약 9-10cm 내외로 중간 크기이며 꽃 중앙의 단심은 크지 않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이 길고 선명하다. 잎 길이는 약 5-6cm, 폭은 약 2-3cm이고 잎자루의 길이는 약 0.8cm정도에 달한다. 잎의 모양은 긴 타원형이고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끝이 둥근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파여 갈라지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약하고 끝이 둔하다. 1984년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 자연방임 수분(open pollination) 종자를 파종하여 나온 실생묘 중에서 1990년 선발한 품종이며 '칠보'라는 품종명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칠보산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Hibiscus syriacus 'Chilbo'
무궁화 '칠보'

무궁화 '칠보'

무궁화 '칠보아사달'

H. syriacus 'Chilbo-asadal'

하늘을 향해 좁게 자라는 아사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연분홍빛 흰색으로 피는 홑꽃이 매력적이다. 흰색 꽃잎에는 연한 붉은색을 띠는 아사달 무늬가 불규칙하게 생기고 중심부에는 진붉은 단심 무늬가 선명하게 발달한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쳐지며 꽃의 지름은 약 8-9cm 정도로 중간 크기이다. 꽃 중앙의 붉은색 단심은 1.4cm로 작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붉은색 단심선은

Hibiscus syriacus 'Chilbo-asadal'
무궁화 '칠보아사달'

무궁화 '칠보아사달'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다. 잎 길이는 약 5-6cm, 폭은 약 3cm로 작은 편이며 잎자루 길이는 약 0.8cm 정도 된다. 잎 모양은 약간 길쭉한 달걀형이고 잎끝은 짧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끝이 둔한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깊게 파여 갈라지고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약하고 끝이 둔하다.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에서 품종보존원에 심어진 무궁화 개체 중 꽃의 모양이 특이한 개체를 1990년에 선발 육종하였다.

무궁화 '충무'

H. syriacus 'Chungmu'

홍단심계 품종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는 연분홍색 홑꽃이 매력적이며 중앙부에는 진붉은색 단심이 발달한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치며 완전히 펴지면서 평평하게 벌어져 핀다. 꽃의 지름은 약 10-11cm 내외로 중간 크기이다. 꽃잎은 보랏빛이 살짝 도는 매우 연한 분홍색이며 꽃 중앙의 단심은 크지 않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지면서 붉은색 단심선이 발달한다. 잎은 길이는 약 6-7cm, 폭은 약 3cm로 중간 크기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약 1.1cm 정도에 달한다. 잎의 모양은 약간 긴 타원형이고 잎끝은 길고 가늘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V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은 약간 깊게 파여 갈라지며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아주 약하고 끝이 다소 둔하다. 전체 생김새는 다소 옆으로 퍼지면서 둥글게 자라며 가지는 많이 갈라지고 추위에 대한 내성은 다소 약한 편이다. 1983년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충남 공주시 월산농장에 심어진 실생(實生, seedling)묘로 부터 선발 육종하였으며 '충무'라는 품종명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에서 유래되었다.

Hibiscus syriacus 'Chungmu'
무궁화 '충무'

무궁화 '충무'

무궁화 '춘향'

H. syriacus 'Chunhyang'

Hibiscus syriacus 'Chunhyang'
무궁화 '춘향'

홍단심계 품종으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90일 동안 피는 자주빛 연분홍색 홑꽃이 매력적이다. 꽃 중앙에는 진붉은색 단심 무늬가 뚜렷하게 발달하며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작은 속꽃잎이 약간 발생하기도 한다. 꽃은 꽃잎이 서로 약간 겹치며 꽃잎은 완전히 활짝 벌어지지 않으며 약간 안쪽을 향해 핀다. 꽃의 지름은 약 7cm 내외로 중간 크기이며 꽃 중앙의 단심은 진한 붉은색으로 크지 않고 꽃잎의 맥을 따라 방사상으로 퍼진 단심선은 약하게 발달한다. 잎 길이는 약 3-4cm, 폭은 약 2-3cm로 작은 편이며 잎자루의 길이는 약 0.5cm 정도 된다. 잎 모양은 타원형이고 잎끝은 길게 뾰족해지며 잎밑은 U자 모양에 가깝다. 잎몸이 약간 파여 갈라져 있으며 가장자리의 물결치는 정도는 약하고 끝이 다소 둔한 편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기도 안성시에 자라는 재래 무궁화 중 1972년에 선발하였으며 '춘향'이라는 품종명은 춘향전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춘향'을 기념하여 붙여졌다.

참고문헌

-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 천리포수목원(202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무궁화. 디자인포스트
-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 Doopedia http://www.doopedia.co.kr
-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방랑시인 김삿갓 소나무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山林文學》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억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물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솔숲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짱 할아버지와 자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김삿갓 소나무는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202번지 도로변에 있다. 주위 일대는 사과나무 과수원을 비롯한 농경지이고 안동의 진산인 학가산이 건너다보이는 길섶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나무가 자리 잡은 곳은, 김삿갓이 죽장망혜 竹杖芒鞋에 몸을 의지하고 전국의 절집을 찾아다닐 당시 부석사를 출발해서 안동 봉정사를 오가던 길목이다. 김삿갓이 이 길을 걸었을 당시는 찔레나무와 쑥부쟁이가 우거진 험한 산길이었지만, 지금은 주위 일대가 모두 농경지로 개간되어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변했고, 도로 역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이 소나무를 관리하는 안동시에서는 소나무의 수령을 40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나무의 수령을 직접 생장추로 측정한 결과 2010년 현재 220년으로 확인되었다. 공식 기록과는 18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 기록이 정확하다면 150년 전 사람인 김삿갓이 35년 된 소나무를 옮겨 심었거나 직접 심지는 않았어도 그 일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록이 없으니 그 역시 하나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노거수를 비롯한 보호수나 천연기념물들이 실제 나이보다 많게 기록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경험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수령이 부풀려 있었다.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풍문이나 전설 등에 의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에 대한 역사성을 부여하고 경외심과 신비감을 더하기 위하여 수령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설하고,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소나무의 형태가 특이하다. 소나무 밑가지는 땅으로 넓게 드리우고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수관 형태가 마치, 비 오는 날 쓰고 다니는 삿갓 모양을 닮았다. 수목은 생장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무가 밀생되어 있으면 키만 훌쩍

크고 가지가 좁게 자라지만, 경쟁하는 나무가 없으면 키보다는 수관이 넓게 벌어진다. 종자가 다르지 않으면 주위에 서 있는 나무는 서로의 모습을 닮는다. 그런데 이 소나무는 연접된 야산에서 자라는 소나무 형태를 전혀 닮지 않았다. 김삿갓이 이 소나무를 직접 심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 소나무를 심는데 간여했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김삿갓이 오가는 길목에서 이 소나무 아래서 땀을 식혀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 어느 사연이 되었던 김삿갓과는 일말의 인연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김삿갓 소나무의 치료 시술은 비교적 수월했다. 특별한 병해충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수세가 약한 현상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죽은 가지, 쇠약한 가지 등이 수관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를 정비하는 수관조절 작업을 시행하였고, 낮게 드리워진 줄기에는 지주를 설치하여 눈이나 바람을 견디게 하였다.

이 소나무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제부 돌무덤을 제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뿌리 호흡 비율이 매우 높다. 소나무에서 뿌리가 호흡하는 비율은 전체 호흡량의 25%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 돌무덤은 한 해 두 해 쌓인 돌무덤이 아니고 추측하건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인 돌무덤이다. 돌무덤 사이 공간이 있어서 호흡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존치 시켰다. 수목 치료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사실은, 뿌리 부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수목을 고사시킨 경우가 이 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뿌리 호흡이 저하되면서 수세가 쇠약해지다가 급기야는 고사되는 현상이 한둘이 아니다. 노거수의 수관 초두부가 고사하는 현상은 이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작업은 뿌리를 고사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일은 복토 부위에서 새 뿌리가 발근했다면 작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김삿갓이 태어난 시대는 조선 왕조정치가 쇠망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순조에서 헌종 년간이다. 조선조 역사를 통틀어 권문세가의 발호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 순조 대왕의 비妃를 배출한 김조순 대에 이르러서는 세도정치의 극치를 보였던 시대라 할 수 있다. 김삿갓의 가계는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 난에 연루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風飛雹散이 났다. 그 여파로 김삿갓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로 옮겨 숨어 살았다. 성인이 된 김삿갓은 몰락한 가문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한 채 나라에 죄를 지은 가문으로 벼슬에 나가기는 불가능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김란 金鑾으로 고치고 조상과 본관을 바꾸는 소위 환부역조 換夫易祖를 시도한다. 과거를 보기 위해서 사조단자 四祖單子를 바꾼 것이다.

김삿갓이 과거장에서 본 시제는 「論鄭嘉山忠節死嘆金益淳罪通于天」이었다. 정가산의 충절을 논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닿았음을 탄핵하라는 글제였다. 김병연은 할아버지 김익순의 죄상을 통박하는 글을 지어 장원을 하였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죄를 논한 결과였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벼슬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손자가 할아버지를 탄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멸문지화를 당할 일이고 보니 세상만사에 뜻을 잃었다.(할아버지 김익순의 과오를 몰랐다는 설도 있음)

그로부터 김삿갓은 자신의 행동이 하늘 보기 부끄럽다하여 대나무 삿갓을 쓰고 전국을 유랑하였다. 조선천지를 주유천하 周遊天下 하던 김삿갓이 죽은 곳은 전라남도 화순 동복이라는 곳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에는 김삿갓이 살았다는 초가집이 있었고 그 산기슭에는 김삿갓 무덤이라 전해지는 초라한 무덤이 있었다. 뒷사람들이 행정구역 이름을 바꾸고(영월군 하동면을 김삿갓 면으로)기념관을 세웠으며 흩어진 봉분을 가토 加土하고 잔디를 입혔다. 얼굴도 모르는 조상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놓았던 천재 시인 김삿갓, 그를 기리는 마음이 시대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김삿갓이 전국을 떠돌며 읊었던 해학적인 한시 漢詩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시는 식자층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었지만 김삿갓은, 어려운 한시를 우리말 표현으로 쉽게 지었다. 아래 소개하는 짧은 시는 김삿갓이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면서 자신을 몰라보고 홀대하는 서당 훈장을 골려 줄 요량으로 지은 시다. 우리말 발음과 한자의 뜻을 교묘하게 구사한 풍월이 특징이다. 김삿갓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한시이기도 하다.

辱說 某書堂

『書堂乃早知 / 生徒諸無十 / 房中皆尊物 / 先生來不謁』

* 환부역조 換父易祖: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꾼다. 지체가 낮은 사람이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양반 가문에 들어가 양반 행세를 한다는 뜻.

주몽이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춘 물건이 있다?

시인·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이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졸본 땅으로 망명을 떠나기 전에 예씨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인 유화부인이 주몽을 불러 말했다.

"왕자들과 여러 신하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네가 가진 재주와 지혜라면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몽은 동부여 금와왕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주몽의 재주가 워낙 뛰어나자 몹시 불안해하며 그를 없앨 궁리를 하고 있었다.

주몽은 그날 밤 떠나기로 하고 세 청년을 집으로 불렀다. 오이, 마리, 협부가 찾아왔다.

이들은 주몽을 따르는 동지들이었다.

주몽은 떠나기 전에 칼을 두 동강내어 한 동강을 어느 곳에 감춰 두었다.

그러고는 임신 중인 아내에게 말했다.

"뒷날 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거요. 아들을 낳으면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가져와야 하오. 그래야만 아들로 인정할 거요."

주몽은 작별 인사를 끝낸 뒤 세 청년과 함께 졸본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의 자리에 앉았다.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칭하고 자신의 성을 고씨라 했다.

동부여에 남은 예씨 부인은 주몽이 떠난 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몽이 미리 지어 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유리'라 했다.

유리는 동부여의 풍습대로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그에게는 함께 사는 아버지가 없었기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유리도 아버지 주몽을 닮아 활을 쏘아 사냥하기를 좋아했다. 하루는 유리가 사냥을 나섰다가 우물가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유리는 참새를 겨냥하여 활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마침 물 긷는 어느 아주머니의 항아리를 쏘아 맞혔다. 항아리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화가 난 아주머니는 유리를 노려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서 버릇이 없구나!"

유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주머니가 던진 말 한 마디는 유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유리는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시란다.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동부여 왕자들의 미움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지.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란다."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왕이 되셨다고요? 어머니, 당장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가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너의 아버지가 동부여로 떠나던 날 밤에 내게 이런 부탁을 하셨단다. '아들을 낳으면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가져와야 하오. 그래야만 아들로 인정할 거요.'"

"그래요? 아버지가 감춰 두신 물건부터 찾아야겠군요."

그날부터 유리는 주몽이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춘 물건을 찾아 나섰다.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라고 했으니 산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지?'

유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산속을 헤매 다녔다.

그러나 몇 날 며칠 소나무 숲속을 이 잡듯이 뒤져도 아버지가 말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산속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주몽은 지친 몸을 집 기둥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유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만있자, 주춧돌이 칠각형이고, 그 돌 위 기둥이 소나무로 만들어졌지?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유리는 기둥 아래를 조사해 보았다. 과연 그곳에는 구멍이 있었고, 구멍 속에 손을 넣으니 부러진 칼 조각이 들어 있었다.

'아, 드디어 찾았다! 아버지가 감춰 둔 물건이야!'

유리는 크게 기뻐하며 부러진 칼 조각을 들고 고구려를 향해 떠났다.

당시는 주몽이 나라의 기틀을 잡아갈 무렵이었다. 유리는 주몽을 만나 자신이 찾은 칼 한 동강을 보였다. 주몽은 유리가 바친 칼 한 동강을 자신이 갖고 있던 칼 동강과 맞춰 보았다. 정확히 들어맞았다.

"오,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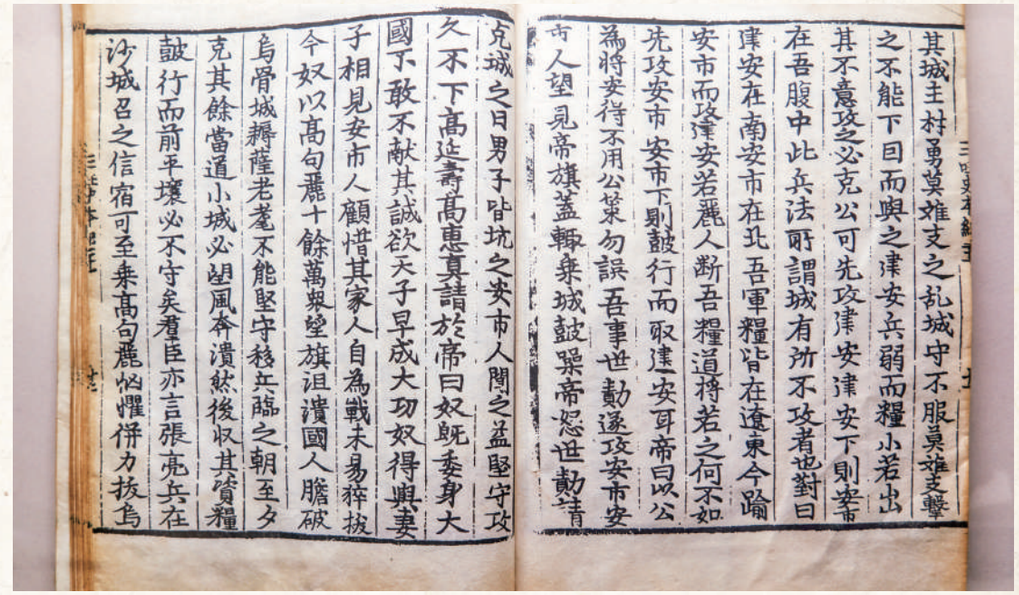
"아버지!"

주몽은 유리를 얼싸안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주몽은 뒤늦게 찾은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기원전 19년 주몽이 마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유리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고구려 제2대 유리명왕이다.



그는 아버지의 시호를 '동명성왕'이라고 하여 그 업적을 기렸다.

유리가 칠각형의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춘 칼 한 동강을 찾아 아버지를 만나러 간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에서는 이미 소나무가 건축물의 기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유리가 칼 한 동강을 찾아낸 주춧돌 위 기둥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삼국 시대 목조 건축물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통해 소나무가 건축물의 기둥으로 사용될 만큼 고구려 땅에서 널리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소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무덤가에 심었다.

그리고 소나무를 무덤 속 벽화에도 그렸다.

6세기경에 그려진 진파리 1호분 벽화에는 소나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노거수 산책 (9)

남해 비란리 동백나무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소 재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647번지 *내곡마을
제 원 : 수고 15m, 수관 폭 16m, 근원둘레 4.1m
수 령 : 최소 400년 이상 추정

남해 비란리 동백나무는 내곡마을 뒤에 있다. 주변 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산과 밭이 만나는 급경사 비탈에 입목하고 있어서 한눈에 위태로워 보인다. 이 동백나무 노거수는 2010년 방송과 지역 신문에서 보도되기도 했고, 이후 경남도와 남해군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보호수 지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은 2025년 2월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제원과 수령이 국내 최대 규모임을 확인했다.

차나무과 동백나무는 한반도 남부 바다 가까운 산에 자란다. 울릉도와 대청도까지 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위도와 표고가 낮은 산기슭에도 드물게 출현한다. 후박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참식나무, 생달나무, 감탕나무, 사스레피나무, 까마귀쪽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과 함께 상록활엽 난대림을 이루는 깃대종이다.

동백나무는 수명이 길어서 장수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천천히 자라는 만성수로 제원이 우수한 개체는 매우 드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노거수는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가 유일하다. 천연기념물 수림지는 강진 백련사, 거제 학동리, 고창 선운사, 광양 옥룡사, 서천 마량리와 옹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自生北限地)이다. 동백나무는 고온다습 환경에 적윤(適潤)한 토양을 좋아하고 내음성은 강하며 내건성은 약하다. 이식활착률은 낮아 몸살을 오래한다. 온난화로 중부이북에 적응할 것이라는데 극한성과 불규칙성을 띠는 기후위기에 적응이 힘들다. 특히 한파에 생장을 멈추고 긴 후유증을 겪는다. 비란리 동백나무는 나주 금사정 천연기념물 동백나무에 비해 수고·수관·근원이 우수하고, 국내 최대 크기로 알려진 거제 외간리 도기념물 동백나무보다 월등히 크다. 가까이 후계목이 있어서 지속가능성도 높다.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은 부산대 최송현 교수와 함께 정밀조사를 하여 천연기념물 추천을 할 예정이다.

나주 금사정 동백나무는 2009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515호로 지정되었고, 전남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130번지에 소재한다. 제원은 수고 6.5m, 수관 폭 7m, 근원 둘레 2.5m이다.

거제 외간리 동백나무는 1991년 12월 23일 경상남도기념물 제111호로 지정되었고, 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444번지에 소재한다. 제원은 수고 9m, 수관 폭 13m, 근원 둘레 2.8m이다.

창원노동변호사

담합(부당한 경쟁 제한 합의) 금지와 예외사례

김봉균
신현목

김봉균, 신현목 법률사무소 변호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합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담합(부당한 경쟁제한)이라고 하고, 이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몇 가지 유형을 정해서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등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합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담합을 했을 때 처벌이나 재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조경수협회와 같은 농업자단체의 경우에 공정거래법상의 담합금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담합이란 무엇인가

1. 담합을 금지하는 이유

법률적 의미에서 담합의 의미는 사업자간에 계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소비자나 다른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담합은 경쟁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상품과 용역이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는 구조를 저해하여 소수의 독과점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이익을 소수의 사업자에게 편중되어 부의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거시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2.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 관리하거나 수행 ·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유형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는 부당한 경쟁 제한의 유형을 8가지로 열거하고 이유형에 포섭되는 사업자간의 합의 등에 대해서 담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합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인데, 재품 출하가격을 사업자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운송비와 같은 비용을 동일하게 책정해서 다른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경우는, 제품 출하시 제품가격이 아닌 제품을 많이 구매해 갈 때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나 본 제품을 팔면서 다른 제품을 무상으로 끼워 주는 등의 행위를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끼워팔기를 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③ 상품의 생산 및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원자재 구매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판업자가 업자와 도서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책판매를 특정의 업체에게만 하는 조항이나, 운송비 등을 도매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여러 한글프로그램 대리점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각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구역을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해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만 실제는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가를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해서 들러리를 서거나, 다른 업체의 영업구역으로 된 지역에는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하고,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정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특정의 사업자가 장비제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업체에 특정의 장비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수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설비증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통신사들이 요금경쟁을 자제하기 위하여 결합상품의 출시를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하거나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시에 특정공법이나 설비항목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특정의 업체를 밀어주기로 하는 합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⑦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여러 입찰자들이 사전에 입찰가격

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낙찰될 자를 미리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⑧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교복제조업체들이 다른 교복업체의 사업진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교복의 단체구매를 방해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를 하거나 특정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교복제조업체들이 사전 합의한 입찰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을 말하고, ⑨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담합을 한 약정이나 계약의 효력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담합행위를 하는 사업자간의 담합약정인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담합 약정의 무효는 담합을 한 당사자간에 무효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담합한 계약이나 약정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담합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담합약정의 무효는 법이 용인하지 않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담합으로 인한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행위가 담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 담합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나 이를 행하도록 한 자(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에서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담합을 한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Ⅱ. 공정거래법상의 허용되는 담합 – 생산자 단체의 담합행위를 중심으로 확인

> 공정거래법은 제40조 제2항은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2. 연구 · 기술개발
> 3. 거래조건의 합리화
>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1. 위 법은 담합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실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을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해당 산업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이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공동행위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②연구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담합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커야 합니다.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하여 담합이 가능한 경우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목적으로 담합이 가능한 경우는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하여야 하고, 공동행위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해당공동행위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공동행위,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용되는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현재 대법원 계류중인 사건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리고기 생산 판매업체인 사업자들이 오리협회내 계열화협의회에 참석하여 오리협회를 거쳐 종오리와 종란을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뒤 통오리 가격인상, 할인금액의 폭 및 비용의 하한선에 대한 합의(이 것이 가격 인상 행위로 공정위는 봄)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는 A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억원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A업체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소를 하였고(공정거래위원회는 2심제로 고등법원이 초심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계열화협의회에서 오리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A업체가 다른 계열화 협의체에 참여하여 가격인상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편으로 농축산물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농축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산업의 유지 지속을 위한 것으로서 농축산물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켜 공정거래를 저해할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업체에게 승소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축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안정적 성장을 우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므로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은 가격변화에 대응하여 공급량을 변동시키기 어려운데 반하여 가격에 따른 수요변화량도 크지 않아 공급량이 과잉 과소한 경우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면 농축산물이 시장에 과잉공급될 경우 그 시장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자의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자는 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사업자만이 시장에 남아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 생산자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분을 수입하여 해결함으로써 수입의존성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국가의 과제로 명시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구 축산계열화법, 구 축산자조금법 등 축산관계 법률에서도 축산물의 수급관리, 적정한 가격의 유지, 공급안정 등을 통해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농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허용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축산물의 최종소비자인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농· 어업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농· 어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체의 자율적인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 어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결정의 취지 참조), 이러한 자조조직은 농·어민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일정한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공동행위를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민 자조조직의 활동이 그 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자유경쟁의 예외로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조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농 · 어민에는 축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농· 어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결정의 취지 참조), 이러한 자조조직은 농·어민의 사회적·경제적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오리 신선육 생산· 판매업자들의 자조조직의 활동으로서 오리신선육 생산·판매업의 유지·존속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로 인하여 오리 신선육 가격이 부당하게 상승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는 그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커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생산량 제한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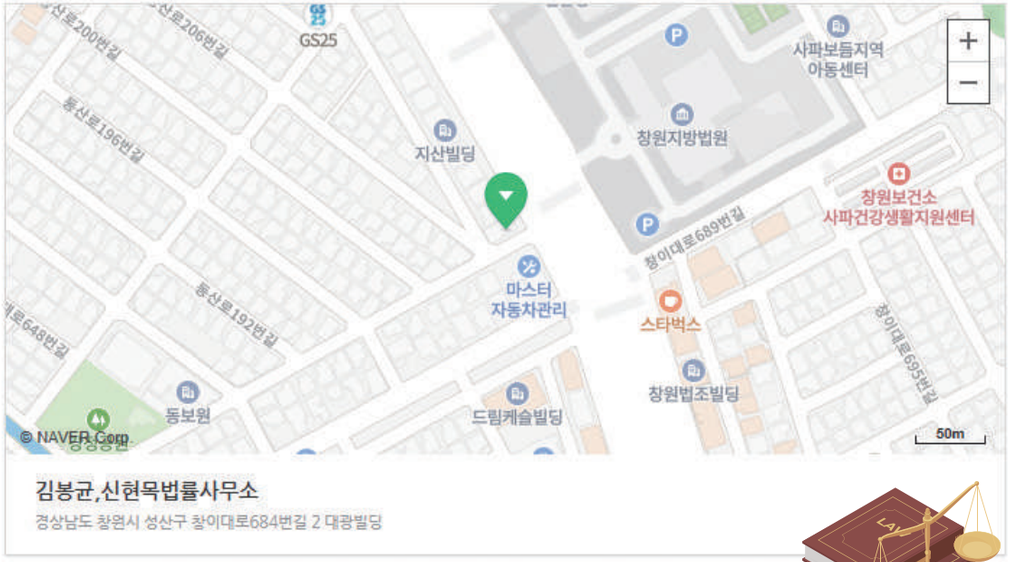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어민이나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깨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지만, 한편으로 농민과 농민을 포함한 생산자단체는 농축산물의 수급의 특성상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경쟁 질서를 보장하는 취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농어민의 이익보장을 위하여 자유경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담합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경수협회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협회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조경수의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간의 수급조절과 판매가격의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판결이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어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보아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회원이나 단체간의 수급물량의 조정이나 가격협의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물의 특성상 생산, 보관 및 수급조절이 쉽지 않아 생산량이나 출고량을 공산품과 달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고, 자유경쟁을 하는 경우 다수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아 새로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농축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대법원판결을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봉균 변호사

창원경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세무학 석사졸업

경력사항

(전)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위원
(전) (주)무학 사외이사
(현)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소청심사위원/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
경상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함안군 법률고문 / 소청심사위원
마산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직장내괴롭힘 판단 전문위원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위원
창원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한국전력경남본부 발전자문위원
김해서부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사단법인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경양돈농협 법률고문

신현목 변호사

우신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행정법 전공, 법학석사)

경력사항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파견
전) 경남은행 준법감시부 변호사
전) BNK금융지주 법무팀 변호사 겸직
현) 김봉균, 신현목 법률사무소 변호사

특기사항

2010. 8. 한양대학교 졸업우등상
2015. 9.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률구조업무 유공자 포상)

임명사항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 우리학교 변호사 (화양초등학교)
현) 경상남도역도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현) 창원시 보디빌딩협회 법률자문위원
현) 반송동 주민자치회 위원
현)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신규회원사 (2025.01-03)

지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전북동부	조경가든센터	박정민	010-5844-68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40-5
전북동부	장수조경수 유통센터	전유진	010-6676-123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한거1길 13, 계남면농민회 201호
경남중부	미송원	구성구	010-2031-894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웅상대로 261
충남서부	미래농원	박희명	010-9977-2235	충청남도 서산시 사연동로 359
광주 전남서부	영산농원	안재영	062-675-9300 010-3603-073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성로19번길 7-4, 재승빌딩 102호
울산	㈜울산나무병원	서창훈	052-257-0547 010-3430-8400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2번길 9-16
울산	㈜늘솔길	채광수	052-282-6300 010-2507-1817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1길 9-10, 헤니언하우스 204호
경남중부	아름산하조경	김창석	010-9346-311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4길 20, 창원 현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107동 601호
경남중부	청암농원	정용선	055-759-4846 010-3830-5111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일사로375번길 36-4
경남중부	에덴농원	임은택	010-3855-4612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방곡길 20-25
경기	드림원예	안석헌	031-336-5345 010-8716-534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로 53
경기	주식회사 이천조경건설	김태성	032-345-8818 010-2242-132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74, 남도종합상사 가동 305호
경기	주식회사 가온조경	김지연	031-378-9773 010-6285-9577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동탄센트럴에이스타워 B동 1216호
서울	서진조경㈜	강경호	02-448-3958 010-2434-298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3길 29, 모은빌딩 202호
경남중부	유진농장	김종관	010-5338-7797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청간길 128-40
경남중부	남면의 아침	조외순	010-7241-678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유어농로 643
서울	수정조경개발 주식회사	심재형	02-832-2646 010-4287-26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 성락빌딩 201호
전남동부	진달래농원	조용태	010-9881-7759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62, 부영2차아파트 206동 907호
전남동부	㈜가람조경	정선숙	052-295-3254 010-3865-325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202
강원	㈜오색조경개발	박윤규	033-747-9113 010-3774-8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259, 102호
경기	주식회사 도두란조경	김도란	031-827-0208 010-6852-020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311, 동화은하수 초록마을아파트 204동 101호
강원	파란나라 주식회사	한윤길	010-5369-653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54-10

회원사변경 (2025.01-03)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한선조경	이용규	주소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51번길 43, 초록마을3단지계룡리슈빌 308동 2201호
㈜장원조경	신경준, 최대림	대표자변경	대표자:신경준→신경준,최대림
㈜대아조경건설	서재수	상호, 주소변경	상호: ㈜대아조경→㈜대아조경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5번길 16, 매월 종합상가 201동 206호
에코랜드	이진철	주소,팩스변경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 엔터비즈타워 A동 1406호, 팩스:02-6455-5789
좋은조경㈜	김영중	팩스변경	052-256-3713
동부조경농원	송시습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59-14, 중흥에듀힐스 906동 805호
순천농원(꽃과나무)	서승기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중흥에코시티8단지 804-1901
에덴수목원	정병환	상호변경	에댄수목원→에덴수목원
㈜대경조경	김순원	상호변경,일반 전화추가,팩스변경	상호변경:대경농원→㈜대경조경, 일반전화:063-564-0026, 팩스:063-564-0027
소성농장	정혜심	일반전화변경	063-537-0004
금산농원	장형선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길 54-13
숲조경	조고봉	주소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566, CGB 오피스텔 7층
알뜰농원	박창민	상호변경	청휘농원→알뜰농원
꽃마중무궁화농원	임철혁	상호변경	새내기무궁화수목원→꽃마중무궁화농원
운동골수목원	김선락	상호변경,일반전화, 팩스삭제	상호변경:㈜원지조경→운동골수목원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2025년 조경수재배기술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공고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비 지원
「조경수 재배기술」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25. 04. 08.(화) ~ 04. 21.(월)** (선착순 조기마감)
- **교육기간** : **2025. 05. 15.(목) ~ 06. 19.(목)**
  ※ 매주 1회~2회 총 40시간 교육
- **교 육 비** : 1인당 자부담 45,000원 (총 교육비 970천원중 925천원 국비지원)
  ※ 교재, 실습재료, 중식 제공 (차량 미제공)
- **교육대상** : 조경수를 재배하거나 조경수 재배에 관심있는 임업종사자
- **모집인원** : **권역별 22명(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교육시간** : 40시간
- **교육 수료기준** : 출석 80%, 과제 20%

교육 신청 및 기타

- **교육신청** : 입학원서 e-mail 신청(사진포함) 후, 기간 내 교육비 납부
  ※ 입학원서 : 협회 누리집 www.klt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 의 처** : **Tel 042-822-5793, Fax 042-822-5797 / E-mail klta@klta.or.kr**
- **교육비 납입계좌** : (농협) 031-01-439240 한국조경수협회
- **본 교육 이수자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이 충족됨.**

교육일정 및 내용

일정		시수	과목명	강사명	소속	장소
공통수업 2025.5.15 (목)		2	조경수목의 이해와 전망	권영휴	한국농수산대학 명예교수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3	조경수 재배 및 유통 (노지,종자,컨테이너)	이근형	㈜옥담 대표	
		3	조경수 재배지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법	이성기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경상권 (선택)	5.21 (수)	3	조경수 번식 (종자, 무성, 삽목)	윤수근	한국조경수협회 명예회장 ㈜)경남조경수/ 봉수조경 대표	봉수조경 농장 (경남 창녕)
		2	조경수 번식 (접목)	김종열	솔밭농원 대표	
		3	조경수 수형조절 (침엽수,활엽수)	윤수근	한국조경수협회 명예회장 ㈜)경남조경수/ 봉수조경 대표	
	5.22 (목)	4	조경수 생산 (노지,컨테이너, 굴취, 분뜨기)	노종식	㈜흥산조경/ 엄마의 정원 대표	엄마의 정원 (경남 밀양)
		4	조경수를 활용한 소득창출	전정귀	만년교정원 대표	만년교정원 (경남 창녕)
	5.29 (목)	8	조경수 관리 (노지, 컨테이너)	이재춘	미소조경 대표	미소조경 농장 (경북 경주)
충북 세종권 (선택)	6.4 (수)	4	조경수를 활용한 소득창출	허춘일	공간조경 대표	공간조경 농장 (충북 청주)
		4	조경수 수형조절 (침엽수, 활엽수)	김진걸	현진조경(주) 대표	
	6.11 (수)	3	조경수 생산 (노지,컨테이너, 굴취, 분뜨기)	신중우	세종식물원 대표	세종식물원 농업회사법인 ㈜ (세종 전의)
		3	조경수 번식 (종자, 무성, 삽목)	윤수근	한국조경수협회 명예회장 ㈜)경남조경수/ 봉수조경 대표	
		2	조경수 번식(접목)	김종열	솔밭농원 대표	
	6.12 (목)	4	조경수 관리 (노지)	김한종	나무지기숲 대표	나무지기숲 농장 (세종 전의)
		4	조경수 관리 (컨테이너)	윤종규	수복나무시장 대표	수복나무시장 농장 (세종 전의)
공통수업 6.19 (목)		7	컨테이너, 노지 재배기술 (관수시설 등)	이근형	㈜옥담 대표	㈜옥담 농장 (전남 곡성)
		1	현장토의	여운식	한국조경수협회 상근부회장	

*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조경수 생산 및 녹화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 생산 및 녹화 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상토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조경자재 품목별 단가가 표시된 주문서는 협회 홈페이지 (www.klta.or.kr)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주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문서는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보내주셔도 되고, 회원사에서 직접 협회사무국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요품목 : 녹화마대, 녹화끈, 고무바, 반생, 조경용 고형복합비료, 코아네트, 황마씨네트, 씨거적, 컨테이너 재배용기, 컨테이너 전용상토 등

코코피트, 피트모스 전문업체

(주)킴스트레이드

뿌리 발육과 작물 생육이 탁월한 원재료만 사용

원재료는 해외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료 채취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깐깐하게 검수 한 후 수입·공급합니다.

조경수 전용 상토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를 사용
- 입자가 굵고 분진이 적은 피트모스를 원료로 사용
- 입자가 굵고 단단한 펄라이트를 원료로 사용
- 우수한 통기성과 배수성을 오래 유지함
- 균일한 성분 조성과 배합으로 빠르고 안전한 포트 재배에 적합

오픈탑 30cm

복원우수 | 적재편리 | 친환경적

코코피트 오픈탑

- UV 처리된 포장으로 별도의 포트(컨테이너)가 필요없음
- 약 5배로 압축된 건조상태의 블록형 제품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25cm 이하 규격)
- 염류가 제거된 고품질 코코칩 함유(30cm 이상 규격)
- 공급 규격 : 15cm, 20cm, 25cm, 30cm

직경 70mm 부직포

직경 100mm 무포장

코코피트 펠렛

- 포트 없이 양묘 재배 가능
- 이식할 때 상토가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아 편리
- 일부제품 디자인 특허 보유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제품
- 공급 규격 : 직경 40mm, 50mm, 70mm, 100mm

KIM'S TRADE COMPANY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8, 효성인텔리안 618호 (아현동) www.kimstrade.com
TEL. 02-338-9962 | H.P 010-5495-9962 | E-mail. kimstrade@kimstrade.com
MAIN Biz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등록번호 : 100102-04781